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 07:12-12)

오늘 이 구절은 앞의 본문들 뿐만 아니라 7장 전체의 주제인 비판, 심판과 깊은 관련을 가진 말씀들입니다. ‘네가 남을 향하여 대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느냐’ 그러면 네 자신이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분쟁과 싸움은 모두 인간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 간다면 오늘 개인과 개인, 가정 문제, 직장의 동료문제, 사회문제, 나라 간의 문제가 해소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을 정확하게 이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일련의 규칙과 규범으로 되어 책이 아닙니다. 구약은 영적인 책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정을 한 책이 아닙니다. 속 마음을 향한 영적인 말씀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 자신을 사랑 하는 것 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이 본성상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와 갈등으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벌레 보다 못한 자이며 먼지와 같은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아 사라질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들을 죄와 마귀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로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죄악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가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새로운 안목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